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 ‘당원명부 유출’ 논란 첫날부터 곳곳 잡음

양향자 “불공정...경선 연기”
이용섭 “축적된 DB 문제없어”
당선관위 “사법부 판단에 맡겨”
전남지사 후보는 오늘 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 첫날인 18일, 일부 후보가 ‘당원명부 유출’ 논란으로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등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당 선관위는 “당원명부 유출 건은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이며, 경선은 중단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경선은 예정대로 20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후보가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경선 이후에도 당원명부 유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시장 경선 후보인 양향자 후보 측이 이용섭 후보 측의 당원명부 유출 의혹과 출마예정자 ‘출세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경선 연기를 주장했다.

양 후보는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당원명부를 중앙당이 우선 회수해야 된다”면서 “답안지가 유출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선은 사실상 불공정 경선”이라고 주장했다.

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당사에서 비공개 회의의 열고 “당원명부 유출로 불거진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히고 광주시장 후보 경선은 애초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경선연기를 요구한 강기정·양향자 예비후보도 정당인이기 때문에 (선관위 결정에) 잘 수긍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원명부 유출 의혹이 경선 첫날부터 또 다시 불거진 이유는 이용섭 후보 측이 지난 14일 시민과 당원에게 지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명단이 유출된 당원명부와 겹친다며 강기정·양향자 후보가 반발했기 때문이다.

두 후보는 불법 유출된 당원명부를 활용해 이 예비후보 측이 또 다시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중앙당의 조사와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이용섭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선거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향자 후보는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원명부 유출 건으로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인데, 만약 혐의가 입증된다면 경선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선을 연기하자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장 경선 투표는 이날부터 20일까지 사흘간 ‘권리당원조사 50%+일반국민 안심번호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된다. 투표결과는 20일 밤 중앙당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김영록 예비후보와 장만재 예비후보간 진행되는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경선 결선투표는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결과는 19일 밤 9시에 발표된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일보

광주 1차 폴리의 명과 암 ▶ 18면



임창용 ‘불혹의 홀드왕’ 도전 ▶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종전선언... ‘정전협정→평화협정’ 추진

靑 “남북정상회담서 합의 후 북미정상회담서 마무리”
주변 4강 외교전 치열...미 폼페이오 방북 김정은 만나

청와대는 18일 남·북 및 북·미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 간 정상회담 등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남북 간 합의를 거쳐 북미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마무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거쳐 남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좀 더 궁극적으로 평화적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협의하고 있다”며 “물론 우리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며 관련 당사국들과 협의에 이르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남북 간 합의를 거쳐 북미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마무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거쳐 남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 관계자는 “남북 간 합의를 거쳐 북미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마무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거쳐 남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좀 더 궁극적으로 평화적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협의하고 있다”며 “물론 우리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며 관련 당사국들과 협의에 이르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중전선언 주체에 대해서는 “직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우선 남북 간 어떤 형식으로든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남북 합의만으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의견이 있어서 필요하면 3자 간, 더 필요하면 4자 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남북 정상회담을 아흐레 앞두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열강들의 움직임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한반도의 최대

현안인 비핵화와 종전선언 문제가 남북정상회담 정식 의제에 오를 것으로 알려지면서 4강(淸)은 저마다의 ‘지분’을 키우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치열한 외교전에 돌입하고 있는 것이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폼페이오 내각자는 지난 부활절 주말(3월31일~4월1일)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극비리에 방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시도했다. 중국 국가주석인 2012년 11월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북한 평양 방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관측되고 있다. 아울러 러시아도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철쭉 만개... 불꽃은 캠퍼스의 봄 18일 광주시 북구 동강대 교정을 찾은 시민들이 활짝 핀 철쭉 꽃길을 걸으며 모처럼 화창한 봄날을 즐기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세월호 선체 다음달 10일 바로 세워진다

선조위, 예정보다 21일 앞당겨

목포 신항에 거처 된 세월호가 다음달 10일 바로 세워진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는 18일

서울사무소에서 세월호 선체 직립 공사 경과 보고회를 열고 현재 옆으로 누워있는 세월호 선체를 바로 세우는 직립 작업을 다음달 1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애초 선조위는 직립작업의 ‘데데이’(D-Day)를 5월31일로 발표했지만, 선체보강 및 철제 받침 설치 작업 등 준비작업이 단축되면서 예정된 날짜보다 21일이 당겨졌다. 선체 직립작업을 맡고 있는 현대삼호중공업은 세월호를 1만t급 해상크레인을 통해 들어올려 회전시킬 예정이다. 해상크레인 과부하가 걸리는 등의 비상상황에 대비해 600t급 육상크레인도 상시 대기한다.

선조위는 7일까지 선체직립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한 뒤 다음달 7일 기상상황에 따라 작업 날짜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직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선체 보강을 위해 설치한 빔과 안전시설물을 제거한다. 이후 미수습자(5명) 수색과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한 선체조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한영기자 young@

우리여행은 우리앞대로

하나투어 단체맞춤여행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업계최초!!
단체맞춤여행
인증제 시행!**

인증서는 고객과 하나투어의 약속입니다. '맞춤여행 인증제'로 여행의 신뢰를 더하세요.

- 안전성**
국내 유일 전세계 23개 네트워크로 안전한 여행을 제공합니다.
- 신뢰성**
인증서로 계약사항을 명확하게 이행할 것을 보장합니다.
- 전문성**
하나투어만의 노하우로 정확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까운 하나투어 공식인증 예약센터 방문 또는 1577-1233 으로 연락주세요.